

## “중동의 구조변화와 대중동 진출전략” 관련 현지 조사 수행

- 윤정현 연구원(국제산업협력센터)

### 1. 출장 개요

- 출장지: 카타르 도하(DOHA)
- 출장기간: 2012년 9월 17일~9월 21일
- 출장자: 주동주(연구위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윤정현(연구원, 국제산업협력센터)

### 2. 출장 목적

- 2012년 5월 한-카타르 에너지산업협력위원회에서 합의된 “산업전략 Task Force 설립”과 관련하여 한국측 창구로 지정된 산업연구원(KIET)이 카타르 측의 담당 부처와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고 후속 조치를 협의하는 한편, 향후 양국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한 조사 수행
- 2012년 자체 연구과제 “중동의 구조변화와 대중동 진출전략” 관련 현지 조사 수행

### 3. 출장 주요내용

< 9월 17일(월) >

#### □ 대사관(이수호 1등 서기관 면담)

- 한 카타르 산업전략 TF 관련 한국 정부가 양국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카타르측에 협력 창구 지정을 요청하는 한편 관심 분야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번 방문의 성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함.
- 현재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 무역부 및 산업부의 국장급(Director)의 결정권 등은 한국의 해당 직급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
  - 차관급 보직이 없어 한국보다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 국부펀드들은 세계 주요 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또한 영국, 프랑스 등지의 부동산에도 많은 투자 중
- 메사이드 지역에서 신항만, EEZ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음
- 기업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개인소득세는 없지만 영업이익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항공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제조업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 건설 분야는 이윤이 박한 편이지만 그래도 대규모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찾고 있음
  - 신규 제조업 투자는 연계사업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임.
- 차후 주요 출장 일정 조정
  - 출장 전 협의했던 방문기관을 일부 조정하여 무역, 투자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Ministry of Business & Trade 방문 일정 추가

< 9월 18일(화) >

□ KOTRA 방문(박태화 무역관장)

- 무역관이 5월 22일 개소식을 하였으며 9월에 들어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음.
  - 개소식 당시 양측 장관이 만찬을 하며 우호적인 자리를 가졌음
-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UAE에 비해 낙후되었지만 유망한 분야로 생각됨
- ICT분야 역시 관심이 많은 분야의 하나
- QATAR Foundation에서 QSTAC이라는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를 설립하여 내년 2분기에 제조공장이 완성될 계획임.
  - 왕비가 주관하는 재단으로 의료, 교육, 신재생에너지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허용함으로써 많은 연구진을 끌어들임
- 현지법상 local 지분이 52%로 정해져 있어 설립에는 어려움을 겪음.
- Business Association - 전경련에 가까운 협의체가 있음
- 차후 전망은?
  - 민주화 이후 중동지역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하락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카타르의 건축분야는 202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한 특수 상황으로 상승국면

□ Ministry of Business&Trade 방문(Dr. Khaled Yousef Alderbesti 투자담당국장)

- (방문 목적 설명후) 현재 고민하고 있는 TF의 구성 방법, 추진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재 일본과 하고 있는 Energy & Investment Cooperation Committee 방식에 대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음
  - ICT, 환경, 과학 등의 분야에 대해서 G2G로 추진하고 있음
- 협력 대상가능 산업군은 New Energy, 인프라, 수력 발전, 항공(물류 등 전체적인 산업 발전) 분야로 카타르 내에서도 관심이 많음
  - Recycling, ICT 등도 양국간에 좋은 협력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KIET의 카운터파트가 될만한 연구기관은 실질적으로 없음
  - 다만, 중소기업을 위한 Qatar Enterprise와 같은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MBT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관을 통해 협력 채널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
  - 태양광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Qatar Foundation 역시 추천
    - ※ 한국이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협력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 (관광산업에 대한 생각) 전체적으로 너무 큰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투자는 지속적으로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 월드컵 이후를 고려한 것도 포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Culture City 등은 이러한 것을 고민한 결과임

□ 삼우건축 방문(오정민 이사장)

- (애로사항) 비즈니스 문화의 비국제화가 문제가 되고 있음
  - 왕정국가라 계약에 명시된 것마저도 상위층의 의사에 따라 쉽게 변경
- 현재 월드컵 경기장 관련 설계 부분 입찰에 응시
  - 서구권 유명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치열한 경쟁 상황임
- 설계분야에서 Local기업들이 들어올 기술력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계 기업들에게 기회가 열려있음.
  - Local기업은 외국계기업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에 입찰을 들어감.
- 인근 건설 경기를 보면 두바이 경기는 좋지만 건설 경기는 안좋은 편
  - 카타르가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음
- 현재 한국의 건설 분야 이미지는 어떠한지?
  - 시공에 대한 부분에서는 카타르 정부가 인정하는 부분이 많지만 아직도 디자인/엔지니어링 부분에서는 이미지가 좋지 않음

□ GS 건설 방문(전필수 지사장)

- 현재 카타르에는 국내의 대형건설사를 포함해 많은 건설사들이 들어와 있음.
  - 최근에는 롯데, 경남, 쌍용 등이 지사를 설립하며 시장에 진출함
  - 관련하여 진출기업협의회가 있음
- 올해들어 GS도 토목/건축 분야의 해외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하였음
  - 가족의 토목이 노동기반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술집약적으로 전환하여 현지 기업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음
- 현재는 METRO Redline North, South 구간 입찰에 참여중임

- 한국 건설사들이 해당 구간에 집중되어 치열한 경쟁이 진행중임
- 입찰은 선진국 기업들과의 JV 형식으로 진행중임
- (협력 방안 모색) 카타르의 국부펀드가 금융위기로 파생상품에 대한 손실 입은 이후 글로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는데 이러한 투자를 유치하여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 프랑스 Vinci가 카타르 국부펀드와 합작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카타르 내 주요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 참조 필요
-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있고 이것을 활용하여 정부의 지원 아래 투자를 유치, 카타르 내 재투자로 이어진다면 경쟁력이 상승할 것임.

**< 9월 19일(수) >**

**□ GOIC 방문(Ahmed Hassan Dhaif 사무부총장)**

- GOIC는 금번 한-카타르 'Industrial Strategies Task Force' 구성에 관심이 많음
  - TF의 멤버로서 참여할 의사도 있으며 이를 위해 Ministry of Energy & Industry와 논의한 후 결과를 알려주겠음.
- 양기관의 공동 연구로서 GCC 국제세미나 등을 함께 열어 협력하는 것은 어떤지?
  - 내년에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해보는 것을 협의
  -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더 고민해보기로 함.

**< 9월 20일(목) >**

□ Ministry of Energy & Industry 방문(Eng. Sulta Jassim N. 산업조사국장)

- (기관소개) MEI는 에너지와 산업 분야의 신규 법인 설립 허가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많이 관심있어 하는 중소기업, METRO 사업 등은 MBI의 소관임.
- 현재 산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중임
  - 약 46개의 산업 진흥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음.
- 금일 면담을 진행한 부서는 이번 TF 구성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 'The Directorate of Industrial Development' 내 조직임.
- 실질적으로 TF 구성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주무 국장의 해외출장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카타르측의 입장을 정해서 추후 KIET에 전달하겠음.
  -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산업전략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분야의 기업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 카타르는 값싼 대지, 전력, 에너지 등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기술력과 개발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함.

□ 주카타르 한국대사관 방문(정기종 대사)

- 한-카타르의 관계는 향후 2년이 아주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수주 물량이 2013, 2014년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관련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대사관에서는 건설/플랜트/인프라 부문에서의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
- 카타르 중소기업들도 현지에 들어와있는 글로벌기업에 비교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고민이 많음.
- 카타르는 경제력이 뒷받침되다보니 관련 정보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있음.

- 선불리 다가서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임.
- 금번 TF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함
- 대사관측에서 카타르 내 관련 주요 행사에 TF의 PM인 주동주 박사를 참여토록하여 해당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겠음.

## ▷ 방문 결과 종합

- 한국 정부가 양국간 합의한 “산업전략 Task Force (또는 포럼) 설립”의 이행을 위해 충실히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카타르측의 상응하는 관심을 촉구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 카타르측은 자국의 에너지 등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한 산업협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TF (또는 포럼) 구성에 관한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천명
- 구체적인 실무 문제는 한국측 창구인 산업연구원과 시간을 두고 협의해 나갈 것임을 언급
- 이밖에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카타르의 현지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인근 산유국의 동향에 대해서도 파악하여 자체 과제 연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취득함.